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관음보살!

장소: 교토국립박물관 헤이세이 지신관
시기: 2020년 7월 23일-9월 13일
편집: 교토국립박물관 교육실
번역: 교토국립박물관 기획실
발행: 2020년 7월 23일

사이코쿠 33관음성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순례길!

'사이코쿠 33관음 성지'는 관세음보살(줄여서 '관음')을 모시는 사찰을 순례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순례길입니다. 이 사찰들은 와카야마·오사카·효고·교토·나라·시가·기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3분의 1이 교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순례길의 총 거리는 약 1000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전설의 시작

관음성지 순례의 시작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인 나라시대(710-794), 나라 지역에 있는 하세데라 절의 도쿠도 스님이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있을 때, 꿈속에서 염라대왕을 만납니다. 염라대왕은 도쿠도 스님에게 순례길을 걸어서 쌓는 공덕의 길을 널리 전파하라는 계시와 함께 33개의 도장을 받습니다. 기적처럼 소생한 스님은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는 통행증인 도장을 33개의 사찰에 나눠주고, 순례를 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좀처럼 순례가 발달하지 못하고, 헤이안시대(794-1185)가 되어서 가잔 범황이 부흥시켰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은 변신 천재!

많은 이들이 믿은 관음보살

『관음경』이라고도 불리는 『묘법연화경(법화경)』의 한 부분인 「보문품」은 어떤 고난을 맞이하더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관음을 부르면 바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이코쿠 33관음성지'의 33이라는 숫자는 관음이 서른세 가지 또다른 모습으로 변신해서 구제하러 나타난다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의 여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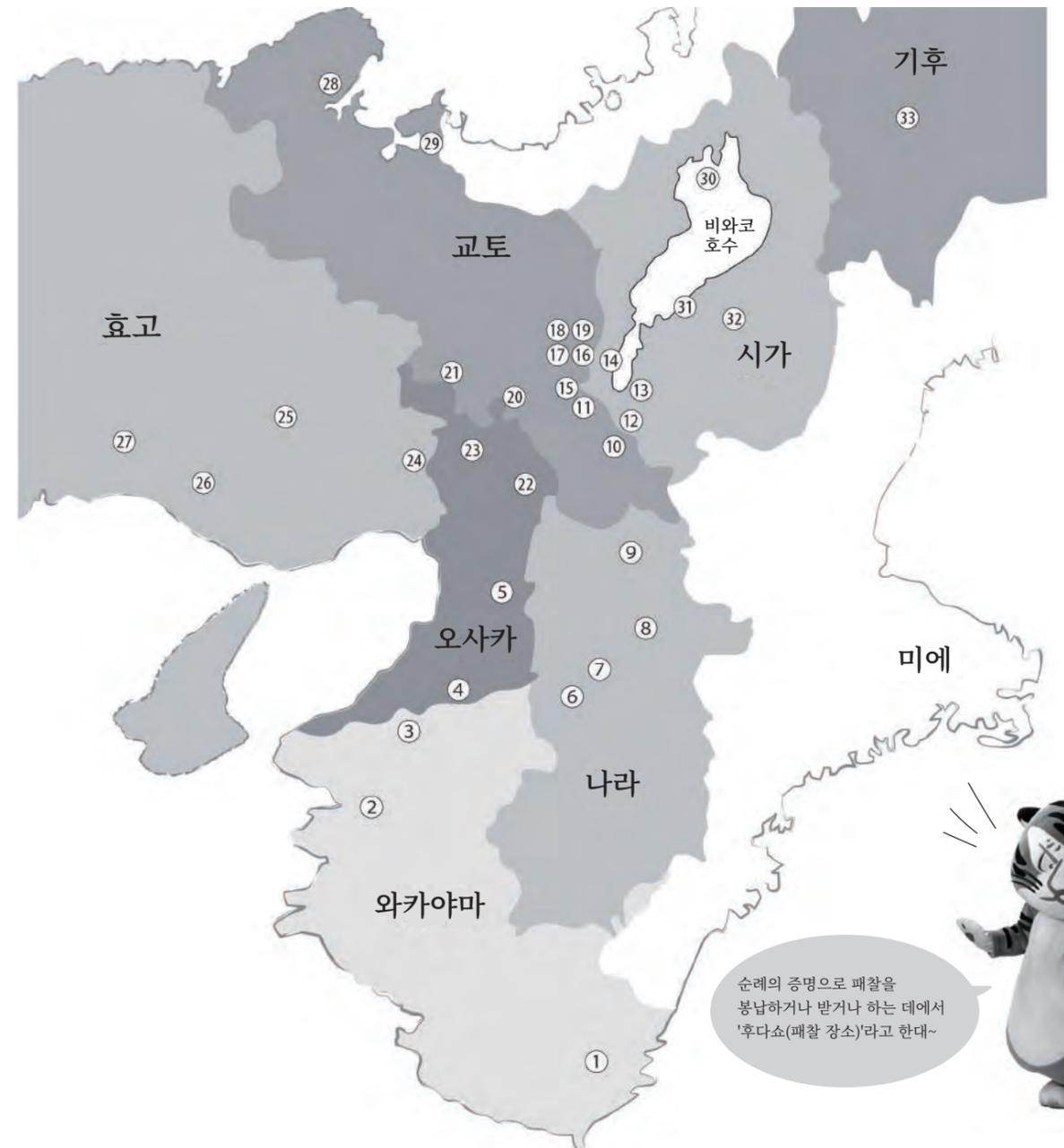
관음상은 얼굴 하나, 팔 둘을 가졌으며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성관음(정관음)을 기본형으로 합니다. 얼굴, 팔, 손 등이 여럿 있거나 아주 많은 관음은 '변화 관음'이라고 부릅니다. 변화 관음은 그 관음이 지닌 능력이나 구제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조형으로 여겨집니다.

육관음·칠관음

육도 세계를 헤매는 우리들을 6존의 관음이 구제해준다는 '육관음 신앙'이 10세기 무렵부터 유행했습니다. 6존의 관음은 진언종에서는 성관음, 십일면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여의륜관음, 주지관음이며, 천태종에서는 준지관음 대신에 불공전삭관음이 추가됩니다. 이들을 합쳐서 칠관음이라고 부르며, '사이코쿠 33관음성지' 사찰에서는 이 일곱 관음 중 무엇인가를 본존으로 모십니다.



사이코쿠 33관음성지 지도



- | | | | |
|----------------------|----------------------|---------------|---------------|
| ① 세이간토지 절 | ⑨ 고후쿠지 절 난엔도 | ⑰ 로쿠하라미쓰지 절 | ⑲ 반슈 기요미즈데라 절 |
| ② 곤고호지 절(기미이데라 절) | ⑩ 미무로토지 절 | ⑱ 조호지 절(록카쿠도) | ⑳ 이치조지 절 |
| ③ 고카와데라 절 | ⑪ 가미 다이고·준지도(다이고지 절) | ㉑ 교간지 절(고도) | ㉒ 엔교지 절 |
| ④ 세후쿠지 절 | ⑫ 쇼호지 절(이와마데라 절) | ㉓ 요시미네데라 절 | ㉔ 나리아이지 절 |
| ⑤ 후지이데라 절 | ⑬ 이시야마데라 절 | ㉕ 아나오지 절 | ㉖ 마쓰노오데라 절 |
| ⑥ 미나미훗케지 절(쓰보사카데라 절) | ⑭ 온조지 절(미이데라 절) | ㉗ 소지지 절 | ㉘ 호곤지 절 |
| ⑦ 오카데라 절(류가이지 절) | ⑮ 간논지 절(이마쿠마노 간논지 절) | ㉙ 가쓰오지 절 | ㉚ 조메이지 절 |
| ⑧ 하세데라 절 | ⑯ 기요미즈데라 절 | ㉛ 나카야마데라 절 | ㉜ 간논소지 절 |
| | | | ㉝ 계곤지 절 |



성관음(정관음)

- 얼굴 하나, 팔 둘(일면이비)
- 사람에게 가까운 모습. 관음보살의 기본형
- 아미타여래의 화신불(작은 상)이 있는 것이 일반적
- 왼손에 연꽃 봉오리를 들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꽃잎을 여는 듯한 모습을 한 것도 있다



십일면관음

- 작은 얼굴 11개가 붙어 있는 것이 기본형
- 정수리의 얼굴은 부처의 얼굴을 하는 것이 많다. 나머지는 보살의 얼굴로, 온화한 표정, 화난 표정, 긴 어금니가 있는 얼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얼굴 등이 있다
- 2개의 팔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왼손에 물병(혹은 연꽃)을 들고, 오른손을 내린 경우가 많다

☆매우 많은 얼굴은 모든 방향에서 지켜준다는 것을 의미

천수관음

- 팔이 1000개 있고 손바닥에는 눈이 달려 있다
- 조각상에는 42개의 팔로 표현된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1000개 가까운 팔이 달린 경우도 있다
- 머리 위에 11개의 얼굴이 달리는 경우가 많다

☆매우 많은 얼굴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



여의륜관음

- 얼굴 하나, 팔 2개 혹은 6개(일면육비)의 모습이 많다
- 여의보주와 법륜(수레바퀴)을 들었다
-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앉은 모습이 많다

☆여의보주……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
☆법륜……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부처의 가르침이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멀리 전해지는 것을 비유

칠관음의 모습

관음보살은 다른 보살과 마찬가지로 아직 부처는 아니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관음보살의 모습은 깨달음을 얻기 직전 아직 왕자 시절의 석가모니를 모델로 합니다. 머리 위의 보관, 팔이나 가슴 부분의 장식은 마치 고대 인도 귀족같이 화려한 장신구들을 착용했습니다.

준지관음

- 얼굴 하나, 팔 18개(일면십팔비)의 모습이 많다
- 이마에 제3의 눈이 있다

☆많은 부처를 낳은 부처의 어머니(불모, 佛母)로써도 신앙의 대상
☆사이코쿠 33관음성지에서 준지관음을 본존으로 모시는 사찰은 가미다이고·준지도(다이고지 절) 뿐이다.



마두관음



- 머리 윗부분에 말머리를 표현
- 보통 온화하게 표현하는 관음 가운데에서는 드물게도 화난 표정에 긴 어금니가 있으며, 붉은색을 한 조각상이 많다
- 얼굴 3개, 팔 8개(삼면팔비)의 모습이 많다
- 이마에는 제3의 눈이 달려있다
- 가운데 손은 마구인(馬口印)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형태

☆끓주린 말처럼 사람의 죄악을 탐욕스럽게 먹어 치워 잘게 쪼개는 힘을 지녔다고 여겨졌다
☆사이코쿠 33관음성지 가운데에서 마두관음을 본존으로 모시는 사찰은 오직 마쓰노오데라 절 뿐이다

불공견삭관음

- 얼굴 하나, 팔 8개(일면팔비)의 모습이 많다
- 손에 견삭(땃줄)을 들었다
- 이마에 제3의 눈이 있다
- 사슴가죽을 둘렀다

☆견삭……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출하는 동아줄
☆사이코쿠 33관음성지에서 불공견삭관음을 본존으로 모시는 사찰은 고후쿠지 절 난엔도 뿐이다

